

* 첨부자료

재난재해관련 첨단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

1. 재난재해관련 첨단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

(1)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

- 1) 지진: 일본, 뉴질랜드
- 2) 태풍: 위력 증가 (예 - 2011년 미국의 토네이도 피해)
- 3) 홍수
- 4)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
- 5) 국내의 재난 외에도 국외 재난시 구조팀 파견 필요성

(2) 인공적인 재해 가능성 증가

- 1) 대형 교통사고: KTX 등 열차 사고 가능성
- 2) 비행기 사고
- 3) 선박 사고
- 4) 해적 사건 증가
- 5)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

(3)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질환들의 증가

- 1) 외상 - 교통사고: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
아주대병원 20병상, 4명의 의료진
전체 환자의 30% 사망
이송체계 부실 - 헬기 이송 불가
- 2) 화상 - 현재 대학병원 급에서는 한강성심병원에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보험수가로 인하여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전문적인 치료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화상의 사망률도 높으며 특히 후유증이 매우 심함
- 3) 신종 감염성질환: 조류인플루엔자, SARS 등 - 감염 환자의 격리 병실을 구하기 힘들
- 4) 방사선 관련질환: 백혈병 - 조혈모세포이식 (체르노빌 사고 이후 백혈병

발병증가로 인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이 증가)

2. 현재의 상태

(1) 필요성에 대한 공감

- 1) KBS 5월 10일 뉴스 - 외상센터 건립의 필요성
- 2) 119 구조대의 의료인력 교육의 부실
- 3) 삼호주얼리호 석해군 선장 - 치료비
- 4) 해외 재난시 파견 의료팀 - 중앙관리 필요

(2) 재정의 부족

- 1)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손실이 큼: 외상센터
- 2) 민간병원이 유지하기가 어려움 - 인력 구조가 3교대 항시 대기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움
- 3) 군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 관리가 힘들

(3) 국가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없음 - 119 소방방재청, 응급 의료전달체계, 대형병원, 군병원과의 연결 부재 해당 행정기관이 다름 -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국방부 재난 관리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 부재 특히 과학기술을 총괄하여 예방 및 관리를 하는 기구는 없음

(4)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할 수 없음

(5) 재난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연구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여 연구결과도 매우 빈약함

3. 재난재해관련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주관하는 연구원의 필요성

- (1) 국가적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- (2) 단순한 외상 센터가 아닌 재난재해관련 첨단과학기술 연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전환

- (3) 재난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관리까지 전체적인 업무 관장
- (4) 법적인 보장과 함께 국가전체 관장하는 기구 설립
- (5) 연구원 내에 재난예방과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소, 재난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인력양성기관, 재난관련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3개 하부조직 운영